

共觀書의 救援論

—個人救援이나 社會救援이나 (2)—

安 炳 茂

新約聖書의 共觀書는 로마帝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主權的 民族으로서의 바탕을 뺏긴 70年 이후에 쓰여졌다. 이때의 歷史的 상황은 이스라엘 民族을 選擇된 集團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이와 同時에 그레코 로마라는 汎世界性을 지닌 現實 속에 소수민족으로서 산재하게 되었으므로 세계 안의 한 民族共同體로서 그 特權을 주장할 수 없는 情況에 돌입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歷史的 情況에서 보아도 集團으로서의 權益問題보다 個個人의 人權문제에 점차 구체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民族으로서의 이스라엘의 屍體(?)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온 것이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다. 예수 自身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첫 世代 그리스도인들의 中軸도 이스라엘 民族 안의 적은 무리들이었다. 저들은 民族主義 입장에서 보면 일찍 두 갈래로 갈렸다. 유대

本土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正統 안에서의 그리스도교를 주장했고, 異邦의 유대人들은 汎世界性을 지닌 그리스도교를 주장했다. 後者는 脫民族的 方向이다. 결국 後者가 관철되어 그리스도교는 세계 안의 공동체가 됐지만 성서 자체서는 이 두 요소가 섞여 있다. 이런 情況에서 공관서는 구원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주어진 제목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자.

1. 용어상의 특징

<구원>이란 말과, 그리고 二元論에 用語인 영(pneuma)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 위선 <救靈>이란 말이 적당한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우리 말로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soteria 다. 그 말의 동사는 sozo 이다. 그런데 공관서에서 이

말의 사용은 결코 宗教的인 데 局限된 것이 아니다. 가령 弟子들이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를 <救해>달라고 한 말(마태 8:25),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에게 한 말, 十字架에 달린 예수에게 “남은 구하고 自身은 구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쓴다.

이상에서 보면 구원이란 뜻의 비증은 육체에 대한 영혼의 구원이기보다 오히려 그 反對라는 인상을 준다. 적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이란 말을 영, 육을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은 결코 <영생> 또는 <천당에 간다>는 따위의 종교적 개념과는 상관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斷言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병을 낫게 하는 일에 바로 이 단어를 거의 전용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관서에는 이 말이 16회 쯤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적 구원이라고 할 때는 죽음 다음의 삶 또는 종말과 관련되어 쓰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마가 8:35와 누가 10:26이 그 것이다.

공관서에서 “악에서 구하소서”(주기도) 또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눅 4:18), “월수에서 구원을”,

하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소테리아가 아니고 aphasis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總體로서의 人間, 그리고 <무엇에서의>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구원을 意味한다.

공관서에서 우리 말로 靈이라고 번역된 것은 대부분 原來 靈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pneuma 가 아니라 psyche 라는 단어다. 그것은 실은 영이 아니다. 삶(Life)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태 10:28에는 푸쉬케를 영혼으로 옮겼는가 하면, 마태 16:20에는 목숨이라고 옮겼다.

이와는 달리 <프뉴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개념화된 <靈>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고, 마음 또는 정신 등으로 옮겨진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一定하게 옮기지 못하고 <속 생각>(마가 2:8) 또는 단순히 <마음>이라고 번역했다. (마가 8:12, 14:38) 까닭은 <프뉴마>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영원불멸의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대해서 안, 현상에 대해서 참모습 등의 뜻으로 사용한 것일 따름이다. 가령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마가 14:38)고 할 때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프뉴마인데, 영은 원이지만 하고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 간단한 몇가지 예로서 공관서에는 二元論의 구원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령>과 <구원>을一致시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以上에서 본대로 공관서의 구원이란 總體로서의 人間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그 어느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이른바 再來에 구분하던 宗教라는 틀에 국한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알았다.

2. 구원과 새 세계

위에서는 구원의 個人성과 사회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宣布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 充分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가 1:15은 예수의 說敎의 요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의 宣布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到來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새 세계는 到來(Das Commende)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그 세계는 우선 內在的이 아니라, 到來(未來的)이다. 現在는 사탄이 支配하는 현실이다. Q자료인 누가 11:20에, 사탄이 패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그 것

이다. 이것은 默示文學派의 에은思想과 相通하는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두 次元의 歷史的 현실 即 사탄이 支配하는 때와 하나님의 主管하는 때로 歷史를 구분하는 것이다. 공관서에는 예수의 行爲 중에 사탄(귀신)을 추방한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병든 상태에서 구출한다는 뜻이기에 앞서 사탄과의 투쟁이라는 終末的 행위인 것이다. 即 그는 새 歷史의 창을 열기 위한 투쟁의 前線에 섰음을 행동으로 상징한 것이다. 이 예수의 宣敎現場은 사탄이 支配하는 때이나 하나님의 主權이 임박한 틈바구니였던 것이다. 이것을 神學的으로 終末的 現在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歷史意識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現在에서 구원에의 길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나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글로, 말로 서술했기에 중복될 것을 알지만 그 성격을 재요약하므로써 우리의 물음의 대답을 찾아 보려고 한다.

3.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大前提: 그 나라는 到來(parusia)

* 푸뉴마를 육체와 대립시킨 곳이 꼭한 곳 있다. (누가 8:55)

하는 현실이지 우리가 가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到來라면 바로 이 歷史의 한복판이 그 場이란 말이다. 그 나라가 압박했다는 말인 engiken 는 손에 다올 듯이 압박했다는 뜻으로 本人은 즐겨 胎動했다는 말을 쓴다. 우리는 每日같이 또는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를 반복하면서 성서에 전혀 근거 없는 공간개념인 天堂이라는 佛敎用語를 導入해서 구원과 天堂가는 것을 一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非歷史化하고 無力化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됐다.

이런 대전제 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 몇가지 本文에 주목하기로 하자.

㉠ 만찬의 비유(누가 14:15-24)

어떤 사람이 만찬을 베풀고 <기록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으니 어서 오시오”라고 초대했다 (C. H. Dodd 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시오”와 같은 뜻으로 본다). 그러나 既得權者들은 모두 거부했다. 그들은 所有한 것들 때문에 이 초청에 대해서 開鎖的이었다. 이에 이 主人은 어서 동네 큰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맹인, 절독발이 등을 메려 오라고 한다. 여기에 열거한 사람들은 當時

의 가치관으로 보아 賤民, 나가서는 저주받은 계층이다. 그런 무리들이 이 초대에 응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저들에게 구원 받았다는 말이다.

㉡ 들의 설교(누가 6:20 이하)

누가의 들의 설교는 마태의 그것보다 原型에 가깝다. 그런데 축복의 대상으로 가난한 자, 지금 굶주린 자, 지금 슬피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저들의 상황을 좀더 구체화해서,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누명을 쓴 자라고 한다. 말하자면 無力하고 글자 그대로 가난해서 자기 권익도 지킬 수 없는 버림을 당한 계층이다. 그런데 저들에게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새로운 가치성을 인정하는 따위의 말은 암시조차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순수 사회적 계층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들의 특성을 지적한다면 오직 開放性이라는 것 밖에 없다.

㉢ 예수와 선언(누가 4:18 이하)

누가 복음에 그가 세계에 온 目的의 宣言으로 이사야서를 낭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여기 열거한 자들도 버림받은 사회계층의 총칭이며, 은혜의 해란 바로 포로, 노예, 채무자 등,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해로써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③ 주기도문 (누가에 의한)

누가에 의한 주기도문의 소원은 여섯 가지로 되어 있다. 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② 나라가 임할 것 ③ 일용한 양식을 줄 것 ④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고, ⑤ 시험에 들지 말도록 ⑥ 악에서 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 기도의 대전제는 ①과 ②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계층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一生을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라는 슬로진 밑에 발악하는 부자들에게 日用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까? 人間 사이에서 죄를 누가 짓나? 약자가 강자에게?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대답은 자명하다. 성서는 구약에서부터 거의 일관해서 後者들의 죄를 고발한다. 유혹은 누가 받나? 유혹이란 자체가 벌써 바로 살아 불려 있는 意志가 있는 자에게 의식될 수

있는 一面과, 그 대상은 어떤 意味로나 못가진 弱者라는 사실이다.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은 물론 약자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도 가난하고 눌린 자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기도다.

이외에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등도 이런 境遇에 속하는 말이며 예수의 행동은 이런 분위기로 성격화되어 있다.

이상의 몇가지 구체적인 예들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위의 예에서 등장된 가난한 자, 불구자, 병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눌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등에 대해서 그러한 處地自體를 말한 뿐 단 한마디도 저들의 윤리성이나 종교성 따위를 부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크게 注目할 바다. 가령 가난을 宗教的 德目으로 삼는 宗教가 많다. 淸貧이란 表現이 벌써 그 가난의 價値를 서술한다. 그러나 성서에는 그런 뜻이 없다. 가령 남에게 自己所有를 다 주어버리므로 가난했다거나 暴行당하는 弱者를 구출하다가 불구자가 됐다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갔다든지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운다든지, 따위의 단서가 붙으면 쉽게 새로운 倫理기준으로 의해 뉘어나 그런 단서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난하고 억눌려 산다는 사실 自體는 善도 惡도 아니고, 사회제층의 실상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의 참여 또는 구원을 약속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구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적어도 예수를 메시야로 믿는다,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다, 따위 정도는 불가결이라는 상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후심판의 비유에서 보는데로 그러한 것은 심판의 기준으로서 전혀 반영이 없고, 단지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가난하고 수난당하는 자들과 자기를 一致시킨 것을 상기시킬 뿐이다. 이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기독교의 교리에 매달려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보장으로 알고 열심을 미치는 교회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미 마태복음을 쓸 무렵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다. 그때는 이미 교회라는 것이 교리적 근거를 갖고 자리했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필요했고, 밖에서의 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발달이 된 회합적 윤리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머우기 기고만장한 로마帝

國의 눈에 위협한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유야 어느 것이든지 마태에는 但書들이 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누가의 들의 설교와 마태의 산상설교(같은 자료)를 비교하면 이 사실을 곧 알수 있다. 마태에는 '가난한 자'에 <마음에 있어서>를, '주리고 목마른 자'에 <義에>를 첨부하므로 벌써 內面化시켰다. 이것은 非社會的 倫理化의 첫 발디딤이다. 그것에 덧붙여 누가에는 없는 온유한 자, 자비한 자, 믿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등 윤리적 德目들을 첨가했다. 또 만찬 초대의 비유에서도 無條件 초대 뒷끝에 禮服입지 않은 자를 추방하라는 모순에 찬 첨가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위에서 든 가능성 중 그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간에 현실에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4. 사회혁명과 구원

그러면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선언한 공산주의와 유사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몇가지 차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像을 갖고 있다. 그것은 人間의 머리로 짜낸

設計圖다. 이에 대해서 공판서에는 하나님의 主權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現代人에게 무슨意味가 있느냐, 단순히 그 다음의 말 <나라>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스도 인으로 자처하는 청년들에게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歷史的이면서도 超越的이라는 성격에 注目하자. 超越이란 말도 現代人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들의 統全的 實在라고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是非는 끝없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안믿는 결과의 差異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感知할 수 있는 것은 極히 제한돼 있다. 그것은 人間은 아무리 모든 것을 동원해도 限界의 存在며, 따라서 部分 밖에 접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기 손이 미치는 범위에서 어떤 절대적 결론을 전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른바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데올로기를 아무리 배격해도 自己를 超克할 어떤 外點 (Punkt außerhalb)이 없이는 不可能하다. 外點이란 계속 정작하여 편협화되는 人間을 高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어

떤 새 질서를 만들든지 그것은 集權者에 의해 경직화되는 길 밖에 없다. 까닭은 그들 自身이 바로 絕對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맑시즘의 치명상이 여기 있다. 그는 神을 제거하므로 一次元的 세계를 만들어 버리고 프로레타리아의 손에 絕對權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러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결국 權力을 위한 피비린내나는 각축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까닭은 거기 중재자가 없으니까! 거기 自己고발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더 전개할 자리는 못된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인데, 유토피아는 人間의 실제도로서 그것을 실현수호하기 위해 점점 경직화될 필연성을 안고 있는데 反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끝까지 未知의 것이므로, 人間으로 하여금 언제나 自己고발을 계속하게 하여 脫一向하게 하는 開放的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토피아를 내세운 사회주의는 기존체제를 절대화하고 人間을 그것을 위한 道具로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해 혁명했으며 새 체제를 세웠는데 결과는 사람이 그 체제를 위해 있게 되므로 노예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그의 安息日 法 논쟁에서 뚜렷이 드러났듯이 어떤 體制도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體制를 위해 存在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神的 권위를 가진 질서일지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가 하나님과 사람을 직접 연결시켰기 때문이요, 그 사이 어떤 구조적 체제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個人이나 全體냐의 兩者 擇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저없이 事故인 個人을 선택하는 예수의 입장의 근거가 있다. 잃어버린 한마리 양과 아흔아홉마리 양을 대조시킨 비유나 이른바 죄인들 편에 선 그의 行態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全體라는 이름으로 個人의 人權을 유린하는 것을 當然한 것으로 아는 공산주의나 全體主義 따위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人間理解에서 공산주의와 성서의 입장이 갈린다. 공산주의는 사회부조리를 物質的 측면에서 보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와 utopia를 결부시키는 것이 벌써 人間理解의 피상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예수는 비록 억압받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이 미래의 主人公임을 선언해도, 저들이 物質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행복, 또는 바른 세계란 하나님과 이웃이 바른 關係에 설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5. 선교란?

선교의 목적은 人間의 구원이다. 구원이란 타락을 전제한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그 타락이 사유재산 제도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關係가 깨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로의 回復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이웃과의 關係가 깨진 것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직결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구조화되어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여 自己를 정당화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은 법률이나 道德이라도 용인하지 않은 이가 바로 예수다. 선교활동도 그 목적은 人間구원에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關係의 회복에 있으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構造惡인 것을 發見했을 때, 부조리한 체제나 사회에 도전할 수 밖에 없으

며, 그것이 사회 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궁극적 현실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과제는 상대적인 것, 지나갈 것, 人間이 만든 體制 따위를 絶對視하고 그것에 보장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새 세계가 그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그에게 方向 전환을 말로, 行動으로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회

개 운동이다.

이같은 전제에서 선교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책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同時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서를 並行시킨 뜻일 것이다.

神學思想 21輯

값900원

□ 特輯：理論과 實踐

近代哲學의 理論과 實踐의 關係／Christian Link

위르겐 하버마스에 있어서 理論과 實踐의 媒介問題／Enno Rudolph

아모스의 社會批判／Marlene Fendler

教會의 經驗的 社會調查／K. F. Daiber

□ 심포지움：理論과 實踐

發 { 理論과 實踐／張日祚

題 { 韓國思想에서의 理論과 實踐의 關係／朴東煥

美國民主主義 政治思想에 끼친 宗教의 價值觀의 影響／李章植

바울 사상에 있어서의 구원과 윤리의 관계／張裳

◇ 書評：聖書의 實存／金龍玉

韓國神學研究所 發行